

윌비스 한림법학원 30회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수기

안녕하세요.

제30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이OO 평가사라고 합니다.

수험기간이 길어 아직 평가사라는 명칭보다 수험생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한데, 이런 저에게 지금이라도 합격수기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영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하는 장수 수험생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특정되기도 하고 부끄러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엔 부끄럽지만 검정색 법전이 저의 첫 법전이었습니다. 제가 장수 수험생이 되었던 몇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전업 수험생이면서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상황과 그다지 똑똑하지 못했던 저의 머리, 효율적이지 못했던 저의 공부방법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합격 수기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공부 방법을 버리고 올해 합격하면서 가졌던 공부 방법들을 위주로 말씀드리면서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저처럼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끄럽지만 수기를 작성합니다.

1. 공부 방법

(1) 실무

2년차 수험생 때부터 실무가 과락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점수는 높지 않았지만 과락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 고민이 적었습니다. 시험 점수는 채점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는지 잘 모르지만, 최소한 실수를 적게 하는 것이 실무 점수를 유지하는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2차 시험 3과목 중 불이타가 나오지 않는 이상 모르고 풀지 못하는 상황이 없는 유일한 과목이 실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은 2년차까지 인 것 같습니다. 3년차부터는 자신이 틀렸던 부분에 대한 체크노트를 만들어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부분을 내가 헛갈려하는지 점검하고, 스터디 문제를 풀면서 실수를 최소화 하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실무 목차노트는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지훈 평가사님의 얇은 실무기본서 하나만으로 모든 실무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무의 경우 스터디문제는 시간이 남는다면 다양한 스터디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이론

강사에 대한 고민을 가장 적게 해도 되는 부분이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터디 문제도 그렇습니다. 서점에 가서서 책을 보시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은 정의를 잘 쓰고 목차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득점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초시생일 땐 ‘문제 점수 당 몇 개의 목차를 잡아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강사들의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답안작성의 기준이 있는 것만으로도 분명 답안작성에 큰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 강사들의 말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진 평가사의 얇은 이론 서브도 이론을 빠르게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론 스터디 문제의 경우 수강하시는 학원 이외의 스터디 문제는 직접 100점을 다 풀기보단 무슨 문제를 냈는지 확인하고, 목차를 잡아보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 법규

법규의 경우 강사마다 개별성이 가장 강하고 행정법과 개별법을 모두 다루어야하기 때문에 어떤 강사를 선택할 것인지, 각 과목을 믹스할 것인지 하나로 할 것인지 등 수험생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험생 서브가 가장 많은 과목이 법규이기도 합니다.

법규 공부의 핵심은 단권화인 것 같으며, 지난 합격생의 서브를 구해서 공부하는 것도 효율적인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권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법규는 하면 할수록 공부할 양이 많아지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지난 책들을 전부 버리고 행정법 서브 하나, 개별법 기본서 하나를 베이스로 시중 강사들이 다루는 판례집들을 구해서 봤습니다. 판례는 강사들의 개별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판례를 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적으로 법규는 개별법 문제의 경우 판례의 비중이 크다 생각하여 판례를 중시했습니다.

법규 스터디는 자신이 갖고 있는 책과 가장 맞는 강사 하나만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누구든지 한 분만 믿고 가세요. 그리고 선택한 강사님을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질문으로 괴롭히세요.

저는 이현진 평가사님 스터디로 공부했는데 평가사님이 질문에 답변을 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2. 수험생으로서 힘들 때

(1) 육체적으로 힘들 때 피로 대처방법

오랜 수험기간으로 운동부족이나 영양불균형 등이 일어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수험기간 말기에 두 달 동안 5kg이 빠져 큰 병에 걸린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점은 여러 종류의 영양제로 버텼습니다. 신체가 버텨줘야 공부도 합니다. 몸이 조금 힘들시다 싶으시면 꼭 잘 챙겨드세요. 운동은 여유가 있으시면 걷기운동 꾸준히 해주시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굳이 시간을 내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정신적으로 힘들 때 극복방법

제가 둔감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공부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운동 삼아 걸으면서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썼던 방법인데 너무 힘들어 울고 싶는데 눈물이 잘 안 나와서 유튜브에 슬픈 영상들을 검색해서 울곤 했습니다. 한번 시원하게 울면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힘들면 참지 말고 울어요. 슬럼프에 빠지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합격한 사람들은 울면서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3. 제 개인적인 tip들

(1) 카페 활용하기

12월의 영광, 10월의 영광 카페를 활용하세요. 익명에 기댄 철없는 낯선 말들은 보지 마시고, 사람들의 수험관련 질문 글들을 보고 질문자의 질문을 내가 답변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2) 스터디 문제

법규를 제외한 실무 이론 두 과목은 많은 스터디 문제를 풀어보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법규도 문제만 본다는 측면에선 많은 스터디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험 출제 전 채점자들이 스터디문제를 가져가서 동일한 문제를 피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제 출제자들도 각 학원의 스터디 문제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문제를 접한다는 것만으로도 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3) 같이 공부하는 사람 알기

반드시 같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거나 개별스터디를 함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을 아는 것은 제 수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면서 정말 힘든 건 나의 불합격보다 내가 아는 사람의 합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할 길은 결코 짧지 않고 내 옆에서 함께 뛰어갈 동료의 있으면 그 길이 한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합격, 나의 행복입니다.

4. 마치며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감정평가사가 되어준 나에게 고맙고, 제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게 도와준 한림법학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글을 읽는 수험생 여러분께도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